**마0517(2) Note**

**◆ 이정표: 구약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는가?**

1. 서론

세상의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다고 두리뭉실 묶어서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묵상 중에 작성하여 올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과연 그 많고 많은 구약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규정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는가? 그러면 십계명도 폐하여졌는가? 십일조는 안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제 양심에 긁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실 수가 있을까?

진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바꾸실 수 있고(니네베 민족을 멸하시려다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네베 민족을 멸하지 않으심) ,

진리도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상대적 진리가 있지만은

Ω고전1308. 사랑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에크핖토:한 방울씩 떨어지다,(과정으로부터)떨어져 나가다,잃다,무능하게 되다,던져지다,떨어지다,저버리다,효과를 못얻다,걸리다,벗어짐] 않느니라, 그러나 대언(代言)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소용없게 되며(카타르게오:완전히 쓸모없게 하다,폐지하다,쉬다,방해하다,파괴하다,멀리하다,소용없게 되다,소멸하다,헛되다), 말들(글롯싸:혀,언어,말,방언)이 있다면, 그것들은 그치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느니라(카타르게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품성과 속성은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며

진리도 그 본질적인 속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약0117. 낱낱의 유익한 선물과 낱낱의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이며, 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 오나니, 그분에게는 아무런 변화 [파랄라게:(상태나 궤도의)변형,변화,변덕스러움,변하기 쉬움]도, 회전(回轉)[트로페:회전,혁명,변화,회전(回轉)]의 그림자(아포스키아스마:그늘,그늘지게 함,희미하게 함,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구약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말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긴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 동일하신 한 분,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대책이 없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폐하실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Ω마0517. 내가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나 대언자(代言者)들을 무너뜨리려고(카탈뤼오:늦추다,붕괴시키다,분쇄하다,야영을 위해 쉬다,파괴하다,분리하다,유숙하다,무효하게 하다,뒤엎다,내던지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무너뜨리려고가 아니고 성취하려고[플레로오:가득 차게 하다,꽉 채우다,(웅덩이를)평평하게 하다,(감화,영향을)주다,만족하다,(직무를)수행하다,(기관과 임무를)마치다,(예언을)확증하다,성취하다,완성하다,만기가 되다,공급하다] 왔느니라.

마0518. 이는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질(파레르코마이:가까이 오다,곁에 오다,접근하다,도착하다,가다,사라지다,소멸하다,소홀하다,파하다,지나가다) 때까지 극히 작은 것[이오타:기원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글자 '요드',이오타(헬라어 알파벳 9번째 글자),점,작은 글자,어떤 것의 매우 작은 부분을 지칭] 하나나, 한 획(케라이아:뿔과 같은 것,히브리 문자의 꼭대기 부분,획,돌기,최소의 부분)이, 모든 것이 성취될(가득 채워질) 때까지 법규(노모스)로부터 결코 사라지지(파레르코마이) 않음이라,

우리를 위해 구약의 법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결코 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셔서, 종전의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폐하여졌다고 보기보다는 그 수명을 다하고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체시키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서 주셨다면, 굳이 예전의 하급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구약의 그 많고 많은 모든 규정들을 모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을 겁니다,

새로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전의 것을 붙잡을 필요 없이,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하고, 새로이 주시지 않은 것은 예전의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기름과 물과 같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십일조 규정들을 주셨습니까?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는 십일조를 구약의 시대에서와 같이 그대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가 십일조를 하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염될까봐, 얼른 도망나왔습니다.

1. 구약의 법(노모스, 모세의 법)의 구성 내용들과 그 대체 규정들

그러면 그 많은 구약의 법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중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약의 규정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규정들
2. 이스라엘 백성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정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Ω마22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네 마음(카르디아:마음,사고,마음의 감각,중심부)을 다하여, 네 혼(생명, 프쉬케:호흡,영,목숨,마음,영혼,생명, 유사어:프뉴마,조에)을 다하여, 네 정신(생각,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마음의 기능,작용, 상상, 마음,이해,의향)을 다하여 사랑할지니라.

마2238. 이것이 첫째의 위대한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이니라.

마2239.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마2240. 이들 두 계명들에 모든 법규(노모스)와 대언자(代言者)들이 매달려 있느니라(크레만뉘미:매달다,매달리다)

이를 다른 면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1)의식법 ; 제사,절기,음식에 관한 규례

2)민법: 형제 자매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범들.

Ω엡0214. 이는 그분은 우리의 '화친으로 하나로 됨'[에이레네:에이로(결합하다,묶다)에서 유래,히브리어 솰롬(안녕,평안,번창)에 상응,평화,번영,평강,하나가 됨,고요,안식,다시 하나가 되다/호크마 주석: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종종 뜻한다]이심이라, 그분의 육신 안에서 불화(에크드라:적의,악의,반대의 이유,증오,불화,원수가 됨)를, 법[도그마:(시민의,의례적인,교회법상의) 법,칙령,법령,포고,의견,견해]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들의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를 폐하신(카타르게오:완전히 쓸모없게 하다,폐지하다,쉬다,방해하다,파괴하다,멀리하다,소용없게 되다,소멸하다,헛되다) 후에, 그분께서 양쪽을 하나로 만드셨으며, 또 우리 사이의 가르는 중간 벽을 무너뜨리셨느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각종 의식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들의 것들은 제사,절기,음식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각종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이루셔서, 더 좋은 것으로

대체시키셨으니, 이제는 예전의 것은 지킬 필요는 없겠지요,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0727. 먼저는 그 자신의 죄들을 위해서,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들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분은 매일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드렸을 때에, 이것을 그분께서 한번에 하셨음이라.

히0912.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에 의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전(贖錢)[뤼트로씨스:뤼트로오(속전하다,구속하다)에서 유래,구속함,속죄(贖罪)한,구속(救贖),속죄]을 손에 넣으셔서, 그분 자신의 피에 의해서, 그분께서 단번에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절기와 음식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0910. 그것들은 개편의 때까지 그들 위에 부과되었던, 음식들과 마시는 것들과 여러가지 씻음들과 육신적인 규정들에서만이 유효했느니라.

갈0409.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의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후의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보잘것 없는 기본적인 것[스토이케이온: 배열에서 순서적인 것, 연속적(기본의 근본적인, 시초의) 구성,가정,요소,원리,기초]들에게로 돌아서서, 너희가 그것들에게 다시 노예신분으로 있기를(둘류오:예속되다,속박되다,섬기다) 원하느냐?

갈0410. 너희가 날들(헤메라:낮,새벽부터 저녁까지의 시간대,시간,세대,한낮)과 달들(멘:월,한 달)과 때들[카이로스:기회,정해진,적당한 때,항상,(평안한,적당한) 시기나 때,동안,절기]과 해(年)들(에니아우토스: 해)을 지켜보느니라(파라테레오:자세히 관찰하다,지켜보다,조사하다).

Ω골0216. 그러므로, 아무도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성일(聖日) (헤오르테:명절,잔치,축제일)에 관해서나, 신월제(新月祭, 누메니아:초생달,축제)에 관해서나, 안식일들에 관한 것으로, 너희를 판정하게 허용치 말라,

골0217.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본체[本體, 실체/ 쏘마: (건강한 총체로서)신체,(육적으로) 종(種),몸,시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니라.

롬1420. 이는 음식(고기)은 하나님의 일을 부수지 않음이라, 모든 것들은 실로 순수하나(불순물 없으나), 거침돌(프로스콤마: 그루터기,배신의 기회,범죄할 기회,범죄,실수,거침돌,걸려 넘어짐)과 함께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악이니라.

고전1030. 이는 만일 감사드림(카리스:호의,은혜,선물,자비,너그러움,기쁨,감사)에 의해 내가 동참자로 된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험담을 받느냐[블라스풰메오:중상하다,불경건하게 말하다,참람함,참람하게(말하다),모욕하다,조롱하다,헐뜯다,악담하다,훼방]?

다음에 백성 상호간의 관계인 민법의 규정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등의 수많은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전의 것들을 산상수훈에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구약의 규정들은 대학 수준의 규정들로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구약에 나타난 형제 상호간에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대체시키셨습니까?

Ω요15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1334.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하라

롬0804. 이는 법규의 '법적 깨끗함[디카이오마:공정한 행위,의로운 행위,법령이나 결정,포고,심판,공의,의(義)]'이, 육신을 좇아 걷지 않고 성령을 좇아 걷는 우리 안에서 충족(플레로오:가득 차게 하다,꽉 채우다,만족하다,직무를 수행하다,임무를 마치다,예언을 확증하다,성취하다,완성하다,만기가 되다,공급하다)되게 하려 하심이라.

Ω롬1308.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만족시켰음(충족시켰음)이라.

롬13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어떤 위해(危害)도 일으키지 (에르가조마이:노력하다, 노동하다,효과를 나타내다,종사하다,저지르다,~하다) 않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법을 만족시키는(충족시키는) 것이니라.

갈0514. 이는 모든 법은 한 말씀 안에서,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만족(충족)됨이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둑질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대체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약시대의 법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수명과 기능을 다하고, 새로이 제시된 신약시대의 규범들에게 인수인계하고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발로 차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수명을 다한 구약의 말씀에게서 새로이 등장한 신약의 말씀이 인수인계를 맡아, 구약의 기능을 보완하여 그 임무를 대신 맡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Ω롬03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를 헛되게(카타르게오:완전히 쓸모없게 하다,폐지하다,쉬다,방해하다,파괴하다,멀리하다,소용없게 되다,소멸하다,헛되다) 만드느냐? 당치 않느니라, 그러니라, 우리가 법규를 공고히 굳히느니라(히스테미:서다,붙잡다,거하다,지적하다,가져오다,이룩하다,눕히다,참석하다,고정하다,멈추게 하다,방관하다,대표하다,지속하다).

여기까지가 “구약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저의 항변의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약시대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구약의 그 복잡다단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구약에서 규정하는 것들에서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신약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0520.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법적 깨끗함'[디카이오쉬네: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공정(公正),정의,칭의,의/히브리어 체다카(의로움,정직,공의,덕,번영,알맞게,의로운,의롭게,의롭게 행함)에 상응]이 서기관(필경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법적 깨끗함'을 능가하지[페릿슈오:(질과 양에서)과잉이 되다,넘치게 되다,여분이 되다,풍부하게 되다,탁월하게 되다,(더욱)풍성해지다,나아지다,초과하다,탁월하다,증가하다,남다]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왕국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Ω마0527. 너희가 옛적의 그들에 의해 이것이 말해졌던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곧, 너는 간음을 저지르지(모이큐오:간음하다) 말지니라.

마05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를 이르노니 곧, 그녀를 좇아 갈망하며(에피뒤메오: 마음을 두다,갈망하다,탐하다,바라다,기꺼이 ~하다) 부인을 바라보는 누구든지, 그의 마음 안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을 저질렀느니라.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과,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신약시대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Ω마0543. 이것이 말해졌던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곧,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적[에크드로스:엑도(미워하다)에서 유래,증오하는,밉살스러운,적(敵),사단,원수]을 미워할지니라.

마05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적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카타라오마이: 저주하다,운명짓다)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를 심술궂게 이용하고(에페레아조:모욕하다,비난하다,심술궂게 쓰다,거짓으로 고소하다), 너희를 핍박하는(디오코:추적하다,박해하다,패주시키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구약시대의 규범과 신약시대의 규범 중에서 어느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까?

마2239.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Ω요1334. 새로운 계명(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히브리어 '미쯔바'에 상응/법의 상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과 같이, 그렇게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찌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Ω요0303.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호라오:직시하다,보다,지각하다,보여질 수 있는,볼 수 있는, 기본형은 '나는 본다',눈을 크게 뜨고 내면까지 본다는 뜻, 주의하다) 수 없느니라.

죄성으로 찌든 우리는 뜯어 고쳐가지고는 새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쳐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1130. 이는 내 멍에는 안락하고[크레스토스:고용된,(태도나 도덕에 있어서)유용한,좋은,친절한,자비로운], 내 짐은 가벼움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멍에가 더 무거운 멍에인 것이 사실이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멍에가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Ω갈0516.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피뒤미아:동경,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욕망,갈망)을 성취하지(텔레오:완전히 하다,완수하다,결론짓다,청산하다,실행하다,끝마치다,성취하다,건너다,지불하다)않느니라.

육신을 좇아 걷지 않고, 성령을 좇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멍에가 아주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두서없이, 구약의 말씀이 폐지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 것 살펴보았습니다.